

백암리 白岩里

백암리 白岩里

<구연자 : 아산시 염티읍 백암1리 이갑수씨

아산시 염티읍 백암2리 김봉석씨

아산시 염티읍 백암3리 이근영씨>

백암리는 염티읍의 한 마을로서 뱀발, 구목골, 끝뱀말 마을로 나뉘어 졌으며, 인구수는 총 882명으로서 남자가 446명 여자가 436명이다. 또한 백암리의 마을 이름은 땅을 5m정도 파보니 흰돌이 나온다하여 붙여졌다 한다. 한편 뱀발은 지형이 뱀처럼 생겼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원래는 아산군 원남면의 지역으로서 뱀 모양의 산이 둘러 싸였으므로 뱀말 또는 사전이라고 하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온양군 이북면의 뱀발과 구미동 일부를 병합하여 백암리로 고쳐 아산군 염티읍에 편입되었다.

<백암리 위치도 >



⊗ 뱀발, 구목골, 끝뱀말 마을(백암리)

백암1리는 뱀발, 다래울(월곡), 새터, 서원말로 이루어 졌으며, 뱀발은 뱀 모양의 산에 둘러 싸여 있어 뱀발이라고 하며, 다래울은 방화산 남쪽에 있는 마을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살았던 옛터에 사당으로 본래 상주 방씨들이 기지인데 그 사위 충무공에게 모두 물려주어서 충무공이 살게 되었고 그 자손들이 이어 살면서 충신 효자가 많이 났다고 하며, 새터는 다래울 앞쪽에 새로 된 마을이며, 서원말은 뱀발 서쪽에 있는 마을로 현재 충무교육원 자리에 서원이 있었다 한다.

백암2리는 구목골 마을이라 부르는데 마을에 아름다운 골이 9개가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옷골, 마공골, 동골, 지골, 점매골, 각시골등이고, 나머지 세 골의 이름은 전해지지 않으며, 다른 설은 개꼬리 같은 산등성이에 위치한 마을로 구미골이라 하며, 변하여 구목골이라 하였다고 한다.

끝뱀말 마을은 현충사를 들어가지전 뱀발에 있다하여 불리어지게 된 이름이다.

아산 이충무공 유허

보물 제 155호인 아산 이충무공 유허는 아산군 염치읍 백암리 1284-1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1967년 3월 18일에 지정되었고 관리자는 아산시이다.

충무공 이순신(1545~1498)은 서울 건 천동(지금 인현동)에서 태어나셨는데 본관은 덕수, 부는 정이다. 어릴 때 이곳으로 옮겨 살아 종가가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다. 종가 앞에 우물,활터등이 보존중이다. 종가에는 이충무공의 친필, 난중일기 등이 보존되어 왔다. 조선 숙종 30년(1704) 이곳 유생들이 사당 세우기를 상소하여 숙종 32년에 조정이 허락하여 사당을 세웠으며 국왕이 현충사로 사액하였다. 흥선대원군에 의하여 훼손되었다가 1932년에 이충무공 유적보존회와 동아일보사가 중심이 되어 전국민의 성금으로 현충사를 복원하였다. 1962년 충청남도지사가 이충무공 탄신기념 사업 위원장이 되어 경내를 확장하고 유물 전시관등을 신축하였다. 1966년 박정희 대통령이 성역화를 계획하여 본전 등을 건축하고 1967년 현충사를 사적 제 155호로 지정하였다. 현충사에는 국보급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十이충무공 난중일기, 서간첩, 임진장초

국보 제 76호로 아산군 염치읍 백암리 현충사에 있으며 함책으로 1962년 12월 20일 지정되었다.

┆난중일기는 충무공(1545~1598)께서 임진왜란때 진중에서 육필로 집필한 일기도 연도별로 7권으로 나뉜다.

┆서간첩 : 충무공(1545~1598)께서 가족, 친구들에게 쓰신 편지철로 12매가 보존중이다.

┆임진장초 : 충무공(1545~1598)께서 선조 25년(1592) 4월 1일 전라좌도 수군절도사 재임시로부터 동왕 27년(1594) 정월 10일 삼도수군 통제사를 겸직할 당시까지 군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한 장계 초안이다. 이는 모두 184장 1권으로 선조 25년(1592)에 17건(4월부터 9월까지) 동 26년(1593)에 31건(1월부터 12월까지), 동 27년(1594)에 12건(1월)으로 나뉜다. 여기에는 당시의 전황과 군사지원체제에 관한 사항이 소상하게 표현 기록되어 있어 사료 가치가 높이 평가 되고 있다.

十충무공의 유물(장검 2자루, 옥로 1구, 요대 1구, 도배 구대 1쌍)

보물 제 326호로 아산군 염치읍 백암리 현충사에 보존중이며, 이충무공께서 직접 쓰신 물건으로 장검 2자루, 옥로 1구, 요대 1구, 도배 구대 1쌍이며 1963년 1월 21일 보물로 지정되었으며 소유자는 이재국씨이며, 관리자는 현충사로 되어 있다. 아산 현충사내 유물 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는 충무공 이순신(1545~1598)장군의 유물이다.

< 조사당시 백암리 마을 관련 사진 >



1) 위 치

뱀발마을은 위도 36-48-30, 경도 127-02-20인 지역에 위치해 있다. 황골에서 남서방향으로 5km 떨어진 곳에서 북동쪽으로 떨어진 곳이 서원말이다.

구목골 마을은 위도 36-48-00, 경도 127-02-30인 지역에 위치해 있다. 황골에서 남서방향으로 2km 떨어진 곳에서 북쪽으로 들어가면 구목골이 나온다.

끝뱀발 마을은 뱀발마을과 동일한 위치에 있으며, 현충사를 들어가기 전 탕정과 갈라지는 삼거리에서 중간으로 난 작은 포장길을 따라 들어가면 된다.

2) 현 황

뱀발 마을의 인구수는 382명으로 남자가 197명, 여자가 185명이다. 그리고 호구수는 87호에 이르며 주민의 52%가 농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으며 48%가 기타 서비스업에 종사한다.

구목골 마을은 총 인구수는 364명으로 남자가 183명, 여자가 181명이며, 호구수는 총 97호에 이른다. 또한 주민의 69%가 농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으며, 축산업에 13%, 서비스업 18%에 종사하고 있다.

끝뱀발 마을은 총 인구수는 136명으로 남자가 66명, 여자가 70명이며 호구수는 37호에 이른다. 또한 주민의 43%가 농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으며 57%가 서비스 업종에 종사한다.

- 인구 분포 현황

| 구 분 마을명 | 계 | 남 | 여 |
|------------|------|------|------|
| 뱀발 마을 | 382명 | 197명 | 185명 |

| | | | |
|--------|------|------|------|
| 구목골 마을 | 364명 | 183명 | 181명 |
| 끝뱀발마을 | 136명 | 66명 | 70명 |

- 생업

| 구분 마을명 | 계 | 농업 | 축산업 | 서비스업 |
|-----------|------|-----|-----|------|
| 뱀발마을 | 100% | 52% | - | 48% |
| 구목골마을 | 100% | 69% | 13% | 18% |
| 끝뱀발마을 | 100% | 43% | - | 57% |

뱀발 마을의 농경지 면적은 논 17ha, 밭 29ha이며, 농기계 현황은 경운기가 가장 많고 양수기, 병충해 방제기등이 보유하고 각종 농기계를 조금씩 가지고 있다. 앰프가 구비된 마을회관 1개소가 있다.

구목골 마을은 논 29.7ha, 밭 35ha로 백암리 마을에서 농경지 면적이 제일 넓으며, 농기계 보유대수 또한 가장 많고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마을의 문화시설은 앰프시설이 구비된 마을회관 1개소이다.

끝뱀발마을은 경지면적이 적은 편으로 논 10ha, 밭 12ha이며, 농기계 보유대수는 백암리 마을 중 가장 적으며, 경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끝뱀발 마을은 문화시설이 앰프 시설이 완비된 마을 회관 1개소가 있다.

- 농경지 현황

| 구분 마을명 | 계 | 논 | 밭 |
|-----------|--------|--------|------|
| 뱀발 마을 | 46ha | 17ha | 29ha |
| 구목골 마을 | 64.7ha | 29.7ha | 35ha |
| 끝뱀발마을 | 22ha | 10ha | 12ha |

- 문화 시설

| 구분 마을명 | 계 | 마을회관 | 기타시설 |
|-----------|-----|------|------|
| 뱀발 마을 | 1개소 | 1개소 | - |
| 구목골 마을 | 1개소 | 1개소 | - |
| 끝뱀발마을 | 1개소 | 1개소 | - |

뱀발 마을의 성씨별 현황을 보면 김씨 13%, 이씨39%, 박씨 4%, 최씨 3%, 홍씨 3%로 나타났으며, 덕수 이씨 집성촌이었기 때문에 이씨가 가장 많다. 연령별로 보면 30~60대에 가장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구목골 마을의 성씨별 분포를 보면 김씨 35%, 이씨 14%, 박씨 10%, 최씨 3%, 홍씨 3%로 조사 되었고, 연령별 분포를 보면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끝뱀발 마을의 성씨별 분포를 보면 이씨 14%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 되었고, 각종 성씨가 다양하게 분포 되었으며, 연령별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포되며, 대부분 초등학교 학생들은 송곡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중학생 및 고등학생은 시내에 있는 학교로 통학하고 있다.

- 성씨별 분포 현황

| 구분 마을명 | 계 | 김 씨 | 이 씨 | 박 씨 | 최 씨 | 홍 씨 | 기 타 |
|-----------|-----|-----|-----|-----|-----|-----|-----|
| 뱀발 마을 | 87호 | 11호 | 34호 | 3호 | 3호 | 3호 | 33호 |
| 구목골 마을 | 97호 | 34호 | 14호 | 10호 | 3호 | 3호 | 33호 |
| 끝뱀발마을 | 37호 | 1호 | 5호 | 1호 | - | - | 30호 |

- 최고령자

뱀발마을의 최고령자는 86세에 최 영철씨이며, 구목골 마을의 최고령자는 85세에 김광현 씨이며, 끝뱀발 최고령자는 임씨 할머니로 83세이시며, 아직도 정정 하시다.

3) 자연 경관

뱀발 마을 앞으로는 현충사가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매일 같이 찾아오고 있으며, 마을 뒤 쪽으로는 방화산이 감싸고 있다.

구목골 마을은 현충사의 좌측 산기슭 뒤쪽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이 산으로 둘러 싸여 있다.

끝뱀발 마을은 현충사를 들어가기전 우측으로 위치하는데 마을이 매우 작고 마을 앞으로는 논이 펼쳐져 있고, 그 앞으로 곡교천이 흐르고 있다.

4) 마을 변천과정

뱀발마을, 구목골마을, 끝뱀발 마을은 본래 아산군 원남면의 지역으로서 뱀모양의 산이 둘러싸였으므로 뱀발 또는 사전이라고 하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온양군 이북면의 뱀발과 구미동 일부를 병합하여 백암리로 고쳐 아산군 염티읍에 편입되었다. 이곳에 충무공 이순신이 살던 터와 그의 존영을 모신 현충사가 있다.

5) 입 향

뱀발 마을은 덕수 이씨가 집성촌을 이루어 살고 있으며, 현재까지 15대째 살고 있다. 하지만 덕수 이씨가 들어와 산 것은 이순신 장군이 8세때 이곳으로 오면서부터였고, 그 이전에는 이순신의 처가인 방씨가 살고 있었으니 지금으로부터 450년이 훨씬 넘는 이야기로 서기 1450년경이 훨씬 전부터 마을이 형성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으며, 현재로는 방씨들이 살고 있지 않은데, 이순신이 이곳에 오면서 방씨들이 조금씩 떠나고 지금은 한 집도 살고 있지 않다. 그러나, 장인·장모인 방씨부부의 묘소가 현충사 옆에 모셔져 지금도 이씨 후손들이 시월 열사흘에 제사를 지내주고 있다.

구목골 마을의 원거인은 14대째 살고 있는 본래 뱀발마을과 같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서기 1480년경 약 420여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측되며, 이 마을 역시 이씨들이 터를 잡아 뱀발마을과 형성연대가 비슷하다.

끝뱀발 마을에 처음 터를 잡은 사람은 박씨로 알고 있으나 마을의 형성년대를 알 수가 없었고 지금은 1호밖에 살고 있지 않다.

6) 지 명

十 뱀발마을 지명

·다래울 : 방화산 산속에 있는 마을로 달이 뜨는 동편 골짜기 있다고 해서 다래울이라고 하며, 이순신 장군이 살았던 옛터에 사당. 현충사가 있음. 본래 상주 방씨들의 기지인데 그 사위 충무공에게 물려 주어서 충무공이 살게 되고, 그 자손들이 살면서 충신, 효자가 많이 났음.

·서편말 : 다래울 서쪽에 있는 마을

·동편말 : 다래울 동쪽에 있는 마을. 현재 터만 남아 있음.

·새터 : 다래울 앞쪽에 새로 된 마을

- 서원말 : 뱀밭 서쪽에 있는 마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현충사가 있으며 현재 충무교육원 자리에 서원이 있음.
 - 방화산 : 흙과 돌로 쌓은 산성이 있고, 정자천이라는 샘이 있는데 이곳에서 치성을 드리면 아들을 낳는다는 전설이 있음.
 - 현충사 :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무과에 급제하기 전까지 사시던 성장기지이며, 숙종 32년에 충무공의 넋을 기리기 위하여 사당을 세워 1707년 순종께서 친히 현충사라 사액하였음.
 - 장보고니들 : 한 부인네가 보고리(장바구니)를 들고 노상 그곳을 다녔다해서 장보고니들이라 불리게 되었음.
 - 장보고니 : 서원말 남쪽에 있는 마을로 장보고니들 입구에 있는 마을이며 들이 커서 일을 하는데 밭을 나르는 보고니(바구니)가 풀일새가 없었다 하여 유래 되었음.
 - 주샘 : 현재 현충사 휴게소 앞에 말하는데 현충사가 지어지기 전에 이곳은 논이었는데 현충사가 만들어지면서 샘이 없어졌음.
 - 주샘들 : 주샘이 있는 들. 현재 현충사 주차장으로 편입되어 없어졌음.
 - 부엉바위 : 다래울 뒤에 있는 바위. 부엉이처럼 생겼음.
 - 충무정 : 충무터 앞에 있는 우물인데 현재 현충사 안에 잘 보존되어 있음.
 - 뱀밭 : 뱀모양의 산에 둘러싸여 있어 뱀밭이라고 함.
 - 충무공사당 : 백암리 100번지. 곧 다래울 충무공 터 뒤에 있는 충무공 이순신 사당 그 앞에 충무정이 있음.
 - 송과당 : 백암리에 있는 선조 때 효하 송과 이 덕민이 삼성재를 짓고 후진들을 교육 하었는데 원근 학자들이 송과당이라 함. 광해 2년(1610)에 이 덕민을 인산서원에 배향하였음.
 - 백암산성 : 현충사 뒤쪽 뱀산 정산에 축조되어 있음.
 - 정문 : 현충사 앞에 길거리로 충신 충무공 이 순신, 강민공 이완, 충민공, 이봉상, 충숙공 이 흥무와 효자 절충장군 이제민의 정문이 한 다섯 칸으로 되어 있음.
 - 은행나무 : 다래울에 있는 충무공 옛집 동쪽에 있는 은행나무. 두 주가 있는데 돌로 대를 쌓고 보호함. 충무공이 이곳에서 활쏘기 연습하였다 함.
 - 현충교 : 백암리 앞에 있는 다리. 현충사와 통하는 다리. 1990년도에 4차선으로 확장 되었음.
 - 현충사터 : 서원말 뒤 방화산 기슭에 있는 성역화 이전의 현충사의 터
 - 충무공터 : 백암리 100번지, 곧 다래울 충무공 터 뒤에 있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옛사당 터
 - 정자천 : 현충사 뒷산에 있는 샘. 산제당에 제사를 지낼 때 이 물에 목욕하고, 이물로 노구메를 지어 치성을 드리면 또 아들을 원하는 부인들이 이 우물에 정성을 드리면 아들을 얻게 된다 함.
 - 뱀산 : 모양이 뱀과 같다하여 불리게 됨.
 - 새논 : 뱀밭 앞에 있는 큰들.
 - 안장바위 : 소지기라는 곳에 있음.
 - 소지기 : 와우형국이며 공동묘지였는데 소하 12년도(61년)에 폐지시켰음.
 - 한줄 : 끝뱀밭까지 한줄로 길게 이어졌다 하여 한줄이라 함.
- 十 구목골 마을의 전설
- 구목골 : 뱀밭 남쪽 아래에 있는 마을. 아름다운 골이 9개가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지금은 구미골이라 하며 또는 개꼬리 같은 산등성이에 위치한 마을이라 하여 구미골이라 하였는데 변하여 구목골이 됨.
 - 전매산 : 호랑이 머리라 하는데 기개 유씨가 산 밑에 묘를 쓴 후로 유씨가 그곳에 오면

안좋은 일이 생긴다 하여 후손들이 발길을 끊고 방치되어 있음.

·마공골 : 백암2리에서 황골로 넘어가는 고개. 마공골의 혈을 끊는 다음부터 부자가 없게 되었고, 탕정면과 염티읍의 경계에 도로가 나 있는데도로를 만들기 전, 그곳을 파자 피가 나왔다고 함.

十 끝뱀밭 마을지명

·각시골 : 전에 각시들이 많이 살던 골짜기 마을이라 하여 각시골이라 했는데 지금은 공동묘지로 변함.

·끝뱀밭 : 뱀밭 끝에 있는 마을.

7) 전 설

十 뱀밭 이름에 대한 전설

어느날 한 부인이 아침상을 들여가는데 마당이 굽고 긴 아주 오래된 뱀 한 마리가 몸을 비비꼬고 머리를 뺏뺏이 들어 그 집을 응시하고 있었다. 부인은 달려들 기세를 하고 있는 뱀을 보고 너무 놀라 밥상을 엎었다. 그 소리에 방에 있던 남편이 밖으로 나와 이 광경을 보고 몽둥이를 때리려다 헛간의 샅을 보고 그 샅으로 뱀의 머리를 잘랐다. 피를 흘리고 죽은 뱀이 너무 징그럽고 커서 끌고가 산중턱에 묻었다. 그후로 마을 여기저기에 뱀이 나타나더니 며칠 후에는 집 뜰에까지 들어왔다. 점점 마을 사람들은 걱정과 공포를 떨칠 수가 없었다. 그 부인의 집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뱀을 죽일 때 사용했던 샅이 닿는 곳은 풀이나 농작물이 모두 다 죽고, 뱀풀만이 무성하게 자랄 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뒷산에서 뱀들이 나오는 것을 알고 뱀을 위해 제사를 지내 주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뱀의 숫자가 줄고 뱀풀도 없어졌다. 그 뒤로 뱀과 풀이 많았던 이곳은 뱀밭이라 하였다.

十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소년시절의 일화

여기의 아이들은 지금 전쟁 놀이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는 중이었다. 나이로선 글공부를 할 때지만 문보다는 무(武)쪽을 택해서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장군이 되겠다는 굳은 각오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기에 오늘도 해가 저물도록 무술 연마에 여념이 없었다. 이윽고

"얘들아 ! 오늘은 그만 하자."

하는 굼직한 음성이 들리자 아이들의 동작은 서서히 집을 향하여 걷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아까의 굼직한 음성의 소년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않고 다시 칼을 집어 들더니 혼자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는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유난히도 눈빛이 빛났고, 보통 아이들에게서 찾아 볼 수 없는 넓은 도량터였다. 이 소년은 다름 아닌 순신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순신은 전부터 시기 질투하고 있는 소년이 있었으니 그는 오늘도 순신의 뒤에서 순신에 대한 증오심을 키우고 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하면 저 놈을 골탕 먹일까? 무슨 짓을 해서라도 혼을 내줘야 해."

"그런데 어떻게 골려 줄까? 나한테 꿈쩍 못하게 해야 하는데...."

이튿날, 또 다시 전쟁놀이를 하려고 모였던 소년들,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어제의 소년에게 옆의 소년이 다가갔다. "너, 아까부터 뭘 생각하니?"

"상관마! 내가 기필코 혼내 줄테니까." "아니, 누굴 혼내 준다는 거야?"

"재, 순신이 말야, 그냥 안들꺼야." "왜 그래? 그리고 너 함부로 말하지마. 순신이가 어떤 앤데...."

"뭐야, 순신이 놈이 뭘데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그런 대화가 오고 갔던 날 저녁에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자리에서 혼자 무술 연마에 힘쓰는 순신 앞에 짓궂은 소년이 나타났다.

"야, 순신아... 너 아주 못쓰겠드라. 하는 태도며 말투가 영 내 맘에 안들어."

"그래서 애한테 내일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너와 나의 실력대결을 하는거다...."

하는 소년의 말에 일종의 안도감마저 드는 것이었다. 얼마전에 아이들한테 전해 들어서 알고 있었던 이 소년이 자기한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애기의 결과가 쉽사리 찾아

와 주었기 때문이다.

다시 동편에서 둥근해가 떠오른 날 빙 둘러 쌓인 아이들 속에서 두 소년의 실력 대결이 이루어졌다. 자기의 실력이 기필코 순신의 실력을 꺾어 승리감에 젖어야겠다는 짓궂은 소년과 얼굴에 만반의 미소를 띠우고 태연자약한 순신이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자기들의 생각한 바를 이루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딱!" "딱!" 줌처럼 승부가 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든 순신은 전력을 다하기 시작했다.
"이 소년의 실력은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과 동시에 소년은 헛점을 정통으로 찌르니 툃하는 소리와 함께 소년의 칼은 나뒹굴게 되었던 것이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소년의 칼은 나뒹굴게 되었던 것이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소년은 무릎이 저절로 순신 앞에 꿇겨짐을 느꼈다. 이윽고 험악했던 공기가 가라앉자 아이들의 눈은 자연이 순신에게 쏠리게 되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개의치 않은 순신은 잠시 주저하더니 무릎을 꿇고 있는 소년 앞에 칼자루를 던져 놓고, 소년의 어깨를 탁탁치곤 말없이 언덕을 내려 갔다. 멍하니 앉아 있던 소년은 패배감에서 오는 수치감과 순신이의 태도에서 오는 고마움이 한데 엉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내가 커다란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구나! 난 다만 아이들이 순신이를 존경하기에 그것이 아니꼬워서 해 본 장난인데...."

그리고 잠시나마 순신이를 미워했던 자신이 한 없이 저주스러웠다.

이후 소년의 태도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순신이를 대할 때마다 항상 공손한 태도와 바른 말씨를 사용하니 옆에서 보고 있는 아이들까지도 놀랄 정도로 변해 있었던 것이다. 순신 또한 그 소년에게 잘 대해 주니 그들은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깊은 우정을 갖게 되었다.

十 이충무공의 꿈을 꾸 친구의 일화

북한산에 단풍이 물드는 10월 4일 선조 임금은 마침내 서울로 환도하게 되었다. 선조 임금은 환도한 후에 이순신을 경상, 전라, 충청도의 수군을 총 지휘하는 삼도 수군 통제사로 새로이 임명하고 여지껏 맡아오던 전라좌수사의 임명 된던 날 그의 가까운 친구 하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한다.

"처음 보는 나무가 있었지. 높이는 하늘에 닿고 가지는 사방으로 뻗어서 공간에 가득차으며 가지마다 사람이 올라가 붙들고 있는데 그 수가 몇 천만 명인지 모를 정도였소. 그런데 웬일인지 그 큰 나무가 갑자기 흔들리고 뿌리가 뽑히며 넘어지려 하는 거야.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지."

"사람 살리오!" 그런데 그 순간 어디에선가 사람 하나가 나타나더니 몸으로 그 넘어져 가는 큰 나무를 떠 받치니까 바로 서는게 아니겠소? 그러자 사람들은 마음을 놓았지요. 그런데 나무를 떠받친 사람은 다름 아닌 이 순신이었던란 말이요. 그 친구는 아는 사람을 보면 그 생생했던 꿈 이야기를 되풀이하곤 하였다.

十 강민공 이완에 관한 일화

이완께서는 충무공의 맏형 충신공의 넷째 아들로 1579년 4월 11일에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학문보다 무예를 좋아 하셔서 공부를 끝나자마자 활을 들고 뛰어 가곤 하는 그였다. 그것을 목격한 아버지께서는 꾸중도 많이 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공부는 아니하고 무예를 더 중시하느냐? 앞으로는 네 방에서 한 발자국도 옮기지 말고 근신하여라."하고 엄명을 내리신 적도 있었다. 이완은 아버님의 화가 풀린 다음에 "아버님 죄송합니다. 학문에 뛰어나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것도 좋지만 문무를 겸비한 사람은 더욱 필요합니다. 더욱이 우리 조선에는 더욱요."

그분의 나이 10세 되던 어느날 아침부터 완이 안보여 그 분의 아버지 충신공은 대단히 노하여 엄히 다스리려고 회초리를 한다발 준비해 놓고 완을 기다리고 있었다. 헤칠 무렵이 되어서도 완이 나타나지 아니하자 화가 난 충신공은 종을 시켜 완을 찾아오게 하였다. 그 종이 완을 찾으러 동네를 돌아 다니는데 옷매무새가 추해 보이는 조그마한 아이가 달려와 완이 지금 어떤 아이들과 싸움을 한다고 알려 줬다. 달려가 보니 완은 서너명의 아

이들을 상대로 격투를 벌이고 있었다. 옷을 흙투성이가 되고 코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것을 본 종이 말리려 하였으나 막무가내였다. 끝까지 싸워 이긴 완이 집에 돌아와 보니 아버님의 꾸중이 대단하였다.

몸을 깨끗이 씻고 들어온 완은 자초 지종을 말하였다. 그건 이러했다. 밖에 잠깐 놀러 나갔는데 어느 조그마한 아이를 돌려 싸고 서너 명의 아이들이 그 아이를 놀리고 있었다.

"거지! 거지!"

"밥 빌어 먹는 거지야!"

가만히 들으니 그 아이는 부모없고 나이 어려 이집저집 밥을 얻으려 다니는데 아이들이 그 뒤를 따라 다니며 놀리고 있는 중이었다 하니 불의를 보고는 참지 못하는 완으로선 도저히 그곳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 그 아이들에게 달려 들었다 한다. 아무리 무예를 잘하는 완이라지만 서너 명을 상대하기란 힘이 겨웠으나 완은 끝까지 온 힘을 다해 그 아이들을 혼내 주었던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충신은 장차 완이 큰 인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렇듯 완은 어려서부터 정의로왔던 것이다. 학문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十 이충무공의 셋째 아들인 이면의 일화

면은 1577년 우리 고장의 아산에서 충무공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인물이 누구보다 뛰어났고 지혜와 용맹을 갖추었으며 말 달리고 활쏘기를 잘하며 부모의 뜻에 복종하였다. 그는 항상 아버님처럼 훌륭한 장군이 되어서 아버지에게 힘이 되고 나아가서는 나라를 위해 내 한 몸 다 바치겠습니다라며 그의 의지를 굳힘으로 공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뿐만 아니라 공은 면이 당신을 닮았다하여 무척 대견해 했다. 그후 임진란이 일어났다. 면은 이때 어머님을 모시고 고향인 아산에서 있게 되었다. 그는 전장에 계신 아버지를 걱정하면서도 글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이다. 이날도 면은 여느때와 다름없이 글을 읽고 있을 때다. 그런데 밖이 무척 소란스러웠다. 면은 "왜 이리 소란스러우냐, 밖에 무슨 일이라도 있던 말이나?" 라며 물었다. 이에 하인이 "도련님 큰일 났습시다요. 왜놈들이 동네 안에 들어와서 분탕질을 하는등 갖은 행패를 다 저지르고 있습니다요."하며 부들부들 떠다. 이에 면은 두손을 불끈 쥐었다. "이곳이 어디라고 감히 소란을 피운단 말이나. 내 기필코..." 분한 마을을 이기지 못한 면은 급히 밖으로 나갔다. 면은 왜놈들 중에서 장수인 듯한 자의 앞에 버티고 섰다. 면은 천지가 울릴듯한 거대한 음성으로 "네이놈! 이곳이 어디라고 함부로 발을 들여 놓고 짓밟는단 말이나, 하늘이 두렵지 않더란 말이나?" 라고 외쳐 꾸짖으며, 일본 장수에게 대들었다. 이에 일본 장수는 가소로운 듯이 얼굴에 미소까지 머금고선 "무엇이, 조그마한 놈이 감히 누구이노에게 큰소리 쳤소까?"

"나는 이 마을에 사는 이면이다. 이곳이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서 분탕질이나?"

"하하.... 내가 누군지 모르는가 본데 나는 스즈기 대장이다. 이 땅은 곧 우리노 땅이 된다."

"무엇이? 이 땅은 조선인의 피와 얼이 담긴 우리의 땅이다. 너희 더러운 왜놈에게 빼앗길 성 싶으냐? 내가 있고 우리 조선인이 살아 있는 한 너희들에게 한치의 땅도 못준다. 이놈" 이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분에 참지 못한 일본 장수가 칼을 내리쳤다.

"에잇—" "으악" 하늘이 알리요. 분하다. 그는 21세의 꽃봉오리로 스러졌다. 하늘도 통곡하는 듯 땅은 붉은 피로 덮인 채 젊음의 피는 스러져 갔다. 명랑해전의 패전을 옥지에 올라와 분풀이 하는 일본인의 행패였다.

고향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즈음 충무공은 선조 30년 서기 1597년 정유 9월 16일 명랑해전 뒤에 고군산도까지 갔다가 우수영으로 돌아 내려오는 것은 20여일 뒤인 10월 초 9일이였다. 며칠 뒤인 10월 14일 새벽 충무공은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에 충무공이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길 아래로 넘어지자 그의 셋째 아들인 면이 다가와 웃고 가는 것이다. 충무공이 이상히 여기며 지냈는데 그 날 저녁에 둘째 아들 열에게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걸봉에는 "통고" 두자가 적혀 있고, 글속엔 면이 왜적과 싸우다 전사했노라고 적혀 있었다. 충무공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이 무참히 죽다니, 뜻밖의 소식을 들은 충무공은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그리고 분하고 애통한 마음에

흰 띠를 띠고 매일 통곡했다. 그리고 일기에는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것이 옳은 일일진대
네가 죽고 내가 살다니 남달리 영특하므로 하늘이 이 세상에 머물러 두지 않은 것이냐,
슬프다, 내 아들이,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느냐, 천지가 캄캄하다." 이렇듯 슬프고 안타
깝게 기록했다. 그후 그달 29일 목포 고향으로 진을 옮기고 마지막 진을 쳤다.

이때 면을 잃은데 대한 사적인 슬픔은 이미 떨쳐 보낸 뒤이다.

그런데 어느 날이다. 공이 어슴푸레 낮잠이 들었는데 면이 꿈 속에 나타났다. 그리곤 자
기를 죽인 왜적이 공의 직속에게 사로 잡혀와 있음을 알리고 사라졌다. 그러자 공은 즉시
포로들 중에 아들을 죽인 자를 찾아 냈다. 공은 그 자리에서 아들을 죽인 왜장을 죽임으
로써 원혼이 되어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있을 아들을 고히 잠들게 했다.

十 충숙공 이 홍무의 이인좌 난에 관한 일화

서기 1726년(영조 3년) 정미에서 시사가 대변할 때 공께서는 어영대장으로 있었으며 충
청도 병마 절도사로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1728년 말은 바 임무에 충실히 하
며 모든 일에 있어 빈틈이 없으시던 성품이셨는데 3월 15일 역적 이인좌의 변란이 일어
났습니다.

역적들은 한밤중에 이 인좌의 지휘 아래 북을 치고 외치며 성에 다달았습니다. 성지기는
뇌물에 눈이 어두웠는지 역적에게 뇌물을 받은 후 성문을 열어 주어 그날 밤 무방비 상
태였던 공께서는 큰 화를 당하시게 되었고 많은 인명들이 무참하게 해를 입고 죽어 있었
습니다. 역적은 공을 보고 무릎을 꿇으라고 명하고는 협박하였지만 공께서는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였다 합니다.

"한결같이 나라에 충성을 해왔고 목숨 아끼지 아니하였거늘 내 죽은들 굴복할 것이냐"

공께서는 몇 차례 고문을 당하셨다. 역적 이 인좌는 병부가 있는 곳을 알아 내려 했지만
공께서는 굴복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남은 충의를 다해 말씀치 않자 이에 분노한 이 인좌
는 칼로 위협하였으나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자 공을 옥에 가두고 불에 달군 쇠붙이로
온 몸을 지저 볶은 피가 흐르도록 고문하고 또 고문했으나, 공께서는 가만히 눈을 감으시
고 참으셨습니다. 공은 알고 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생의 길은 탄탄대로가 아니다라
는 말의 뜻을 정해진 운명인 자연속에 태어나서 자연속에 묻히는 것이겠지만 공께서는
그후 6일동안 식음을 전폐하시곤 2달 21일 62세에 옥중에서 나라 위해 돌아가셨으니 모
든 백성들의 복받치는 슬픔을 참지 못하여 소리내어 울고 지옥같은 옥중은 잠잠해졌습니
다. 공의 바른 인간성과 진실성은 후에 1804년 유생들이 글을 올려 이조판서를 추증하였
고 1873년 충숙공이라는 시호를 내리셨습니다.

十 이 제빈님 효행에 관한 일화

이 제빈님은 충무공의 7대손으로 1772년(영조 48년)에 아산에서 태어나셨다. 불과 5세
의 어린 나이에 도 어찌나 영특하였던지 토를 달아 글을 읽는 수재였다 한다. 어느 날인가
그 날도 열심히 책을 읽고 있었는데, 아버님의 부르심이 있어 가서 보오니 "제빈아, 이젠
너의 지식도 많이 쌓여 졌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하냐?"

"아닙니다. 아버님, 소자는 아직도 미진함이 많습니다."

"허허! 그럼 언제쯤 가서야 너의 지식에 만족을 느끼겠느냐?"

"감히 아뢰옵지만 제 평생 걸려도 지식의 한계에는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

"흐흠...."

이렇듯 이 제빈님은 겸손히 자신을 뽐낼 줄을 몰랐다. 인간의 숙명이랄까, 아버님이 돌아
가시고 가세는 점점 기울어져만 갔다. 어느날, 문득 어머님의 고기 반찬 없는 진지상을
발견하고는 메어질 듯한 마음의 아픔에 자신의 무력함에 어머님께 불효 막심함에 용서를
빌었다. "원, 아범도 이만하면 임금님의 진수성찬이지 뭘 더 바라겠나?"하며, 어머님은 도
리어 제빈을 위로하는 것이었다. 앞친데 뒷친격으로 홀로 계시던 어머님께서 병을 얻어
자리에 눕고 말으셨다. 이 제빈님은 부인과 더불어 좋다는 약은 어떻게든 구해다가 드렸
고 이름이 난 의원들도 다 모셔다 치료를 해 보았지만 효험이 없고 병은 더욱 더 악화되
어 갔다. 밖은 칠혹같이 어둡고 싸늘한 밤이었지만 이 제빈님은 어머님의 곁을 떠나지 않
고 병구완을 하고 계셨다. "제빈아! 이제 이 몸도 살 만큼 산 몸 이제는 너의 아버지 곁
으로 갈 날이 온 것 같구나"

이 제빈님은 이 말을 듣고 앉아 있을 수 없었던지 바깥으로 뛰어나와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칼과 사발을 들고 부인방으로 들어갔다. 부인은 한편으로는 놀라움과 두려움에 가슴을 떨었지만 남편의 효성에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이제빈님은 굳은 결심을 한 듯 손가락을 잘라 사발에 피를 받았다. 아픔도 고통도 잊고 오직 어머니를 살려야겠다는 일념으로 숨이 가빠진 어머니께 급히 피를 마시게 하니 어머니께선 기운을 회복한 듯 반나절이 나마 더 사셨다 한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지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어머니 무덤을 살피고 곡을 하니 그 효성이 지극하여 이를 세상의 사표로 정려를 세웠다. 벼슬로는 1801년(순조 1년) 무과에 급제하고 경상좌도 병사에 이르렀고 1832년(현종 3년) 세상을 하직하셨다. 그때가 향년 66세이셨다.

8) 전통놀이 및 대표적 집단행사

뱀발 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계로는 일상계라 해서 초상이 나면 도와주고, 쌀 한가마를 주었는데 요즘은 돈으로 대신 준다고 한다. 또한 현재까지 산신제를 지내고 있었는데 산신제는 방화산에서 정월 초사흘날에 지내고 동네에 부정한 일이 생기면 일주일 후에 다시 지낸다고 한다. 산신제뿐만 아니라 시월 열나흘에는 이 충무공 장인·장모인 방씨 부부의 제사를 지내주고 있다. 구목골 마을에서는 여러개의 계모임이 있었으나 돈계로 통합되어 이루어지고 있고, 산제사는 지내고 있지는 않지만 신만휴라는 사람이 마을에 땅을 기증하여 그 대신에 그 사람을 위해 한식날 제사를 올리고 있었다.

끝뱀발 마을에서는 특별하게 행하여지고 있는 놀이나 제례행사는 없었다.

9) 특별하게 소개할 만한 인물

마을에서 소개할 만한 인물이라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운 영웅 이순신 장군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이분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며, 또한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자손들도 같이 소개 한다.

十 이순신

이순신은 1545년(인종1년)-1598(선조31년)의 삶을 영위한 조선 중기의 명장으로써 본관은 덕수, 자는 여해, 아버지는 정, 어머니는 수립의 딸인 초계변씨이다. 서울 건천동(지금의 중구 인현동 부근)에서 출생했으며, 그의 가계는 고려때 중랑장을 지낸 이 돈수로부터 내려오는 문반의 가문으로 이순신은 그의 12대손이 된다. 1576년(선조 9년) 식년 무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권지훈련원 봉사로 처음 관직에 나가게 되었다. 이후 동구비보권관, 발포수군만호, 건원보권관, 훈련원찬군, 시복시주를 거쳐 녹도둔전사위가 되었는데 이때 호인의 침입을 받고 적은 군사로 용맹하게 싸웠으나 도저히 막을 수 없어 피신을 하게 되는데 조정에서 그것이 오로지 이순신의 죄라 하여 처형을 하려 했으나, 그의 정당함을 헤아려 끝내는 중형으로 백의종군을 하기도 했다. 47세 되던 해에 전라도 수군절도사가 되어 옥포대첩을 승리로 이끌고 학익진으로 유명한 한산대첩에서도 승리로 이끌게 된다. 그리고 1598년 노량해전에서 적탄에 맞아 최후를 마쳤다. 그의 묘소는 아산시 음봉면 어리산에 있으며, 현충사에서 제향하고 있다.

十 이 열 (李 烈)

자는 자홍이요, 본관은 덕수이며, 충무공 순신의 아들이다. 선조때에 음사로 벼슬에 나아갔다가 광해군 때에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인조반정으로 처음에는 충훈부 도사가 되었다가 형조 정랑이 되었다. 집안에 비자가 있었는데 얼굴이 매우 아름다웠다. 광해군이 그 비자를 취하고자 명령을 내렸으나 신자의 도리로서 임금에게 미색을 비치는 것은 불충이 된다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바치지 않았다.

十 이한술(李漢述)

본관은 덕수이며 충무공 순신의 후손인데 진사에 급제했다.

十 이분(李芬: 명종 21(1566년)~광해군 11년(1619))

자는 형보(馨甫), 호는 묵헌(默軒). 본관은 덕수, 의신의 아들 정술(鄭述)의 문인, 이충무공의 질(姪)이다. 임진왜란시 질부 충무공이 통제사로 있을 때 분이 군중에 있으면서 독서(讀書)를 게을리 하지 않으므로 충무공이 군중문서(軍中文書)를 일임하였다. 평의 구원병이 온 뒤에 분이 접대(接待)를 민첩하게 하고 응답(應答)을 사리에 맞게 하자 양진장사(兩陣將士)가 모두 영복(映服)하였다. 선조 36년(1603) 사마시(司馬試)에 합격, 학행으로 천거(薦擧)되어 왕자사전(王子師傅)이 되었다가 공조좌랑(工曹佐郎)을 지내고 서장관(書狀

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온 후 행병조정랑(行兵曹正郎)으로 선조실록(宣祖實錄)을 편찬에 참가하였다. 명나라에 갔다가 췌(宰)의 반열(班列)이 전두(前頭)에 있는 것을 보고 한탄하기를 [유(儒), 석경중(釋經重)의 논(論)이 땅으로 들어 갔다고 하였다.] 그는 성현(聖賢)의 글을 널리 탐독(耽讀)한 외에 음악(音樂), 음율(音律)과 산수(算數)에도 매우 밝았다. 저서(著書)로 가례박해(家禮剝解), 방례편(邦禮編)이 있다. <선조실록(宣祖實錄),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十 이우신(李禹臣: 이조)

본관은 덕수 이충무공의 아우이다. 벼슬은 참봉을 지냈으며, 행의(行誼)로 명망(名望)이 높았다. <신정아주지(新定牙州誌)>

十 이훈(李勳: 李朝)

본관은 덕수, 이충무공의 아들이다. 이조(李造)의 난(亂)에서 싸우다가 순절(殉節)하니 정조시(宗祖時)에 병조참의(兵曹參議)를 추증(追贈)하였다. <조선환여승람(朝鮮輿輿勝覽)>

十 이신(李蠶: 이조~인조 5년 (1627)>

본관은 덕수, 훈의 아우이다. 정묘호란(丁卯胡亂)에 종형(從兄)을 따라 의주에서 힘껏 싸우다가 함께 순절(殉節)하니 정조시(正祖時)에 병조참의(兵曹參議)를 추증(追贈)하였다. <조선환여승람(朝鮮輿輿勝覽)>

十 이회(李籲)

자는 무백(茂伯), 본관은 덕수, 이충무공의 장자이다. 선조 31년 (1598) 노량해전(露梁海戰)에서 큰 공훈(功勳)을 세웠다. 그후 임실(任實)고을의 원이 되어 치적(治績)이 청간(淸簡)했다는 칭송(稱頌)을 받았으며 관은 검정(檢正)에 이르고 원종공신(願從功臣)에 책록(策錄)되어 좌승지(左承旨)에 추증(追贈)되었다. <신정아주지(新定牙州誌)>

十 이한범(李漢範: 이조)

본관은 덕수, 이충무공의 6세손이며, 통정대부(通政大夫)로서 부사(府使)를 지냈다.<신정아주지(新定牙州誌)>

十 이득수(李得秀: 이조)

본관은 덕수, 이충무공의 7세손이며, 벼슬은 통정대부(通政大夫)로서 부사(府使)를 지냈다. <신정아주지(新定牙州誌)>

十 이서빈(李書彬: 이조)

본관은 덕수, 이충무공의 8세손이며, 벼슬은 부사를 지냈다. <신정아주지(新定牙州誌)>

十 이광진(李光震: 이조)

본관은 덕수, 이충무공의 증손(曾孫)이며, 벼슬은 수사(水使)를 지냈다.<신정아주지(新定牙州誌)>

十 이민수(李民秀: 이조)

본관은 덕수, 이충무공의 7세손이며, 벼슬은 수사(水使)를 지냈다. <신정아주지(新定牙州誌)>

十 이언상(李彦祥: 이조)

본관은 덕수, 이충무공의 5세손이며, 벼슬은 통제사(統制使)를 지냈다. <신정아주지(新定牙州誌)>

十 이의수(李宜秀: 이조)

본관은 덕수, 이충무공의 7세손이며 벼슬은 수사(水使)를 지냈다. <신정아주지(新定牙州誌)>

十 이인수(李仁秀: 영조 13년 (1737)~순조 13년(1813))

무신, 자는 성빈(聖賓), 본관은 덕수, 이충무공의 후손(後孫), 어영대장(御營大將) 한웅(漢膺)의 아들이다. 정조 8년 (1784) 경상좌도(慶尙左道)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가 되어 순조(純祖) 1년 (1801) 삼도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를 거쳐 총무사(摠戊使), 좌우총도대장(左右摠盜大將), 금위대장(禁衛大將)등을 역임(歷任)하고 순조(純祖) 12

년 (1812) 훈련대장(訓練大將), 이듬해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使)가 되었다. <정조실록(正祖實錄), 순조실록(純祖實錄)>

十 이정빈 (李廷彬: 이조)

본관은 덕수, 이충무공의 8세손이며, 선전관(宣傳官)을 지냈다. <신정아주지(新定牙州誌)>

十 이한웅 (李漢膺: 숙종(肅宗) 37년(1171))

이조영조때의 무관(武官), 자는 사준(士俊), 본관은 덕수, 이충무공의 회손(會孫), 훈련대장(訓練大將) 봉상(鳳祥)의 조카이다. 영조 28년 (1752) 선전관(宣傳官)을 거쳐 영조(英祖) 34년 (1758) 경상좌도병마절도사(慶尙左道兵馬節度使)가 되었다. 또 영조 44년(1768) 삼도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를 지낸후 충무사(摠戎使), 금위대장(禁衛大將), 어영대장(御營大將)등을 역임(歷任)했다. <영조실록(英祖實錄)>

十 이한풍 (李漢豐: 영조 49년(1773)~순조 3년(1803))

무신(武臣), 자는 계흥(季興), 본관은 덕수, 이충무공의 후손(後孫)이다. 음보(蔭補)로 오위사직(五衛司直)이 되어 영조(英祖)37년(1761) 길주목사(吉州牧使)를 거쳐 영조 44년 (1768) 좌부승지(左副承旨)가 되었다. 영조 48년 (1772) 경상좌도병마절도사(慶尙左道兵馬節度使)로 부임(赴任), 이듬해 다시 승지(承旨)로 임명(任命)되었으며, 정조 6년(1782)에 함경남도병마절도사(咸鏡南道兵馬節度使), 정조 9년(1785)에 우포도대장(右捕盜大將) 이듬해 함경북도병마절도사(咸鏡北道兵馬節度使)를 거쳐 어영대장(御營大將)이 되었다가 경기도(京畿道)에 창궐(猖獗)한 도적(盜賊)을 소탕(掃蕩)하지 못한 책임(責任)으로 양재역(良才驛)에 유배(流配)후에 풀려 나와 정조 15년 (1791) 평안도병마절도사(平安道兵馬節度使)로 갔고 이듬해 금위대장(禁衛大將)에 올랐으며 정조 18년 (1794) 다시 어영대장(御營大將)에 전직(轉職)했으나 탄핵(彈劾)을 받고 충주에 유배(流配)되었다. 정조(1796) 좌포도대장(左捕盜大將)에 기용(起用)된 후 장용위대장(壯勇偉大將), 훈련대장(訓練大將)등을 거쳐 행호군(行護軍)이 되었다. 궁술(弓術), 검법(劍法)에 특기(特技)가 있었고 글씨를 잘 썼다. <영조실록(英祖實錄), 정조실록(正祖實錄)>

十 이항권(李恒權: 이조 ~헌종(憲宗) 1년 (1835))

이조순조(李朝純祖)때의 무관(武官), 자는 중구(仲久), 본관은 덕수, 이충무공의 8대손이다. 순조8년 (1808) 음보(蔭補)로 선전관(宣傳官)이 되었고 이듬해 무과(武科)에 급제(及第), 별군직(別軍職)에 뽑혀 대궐(大闕)을 숙위(宿衛)했다. 황해도수군절도사(黃海道水軍節度使), 전라도 병마절도사(全羅道兵馬節度使)를 거쳐 순조 34년 (1830) 삼도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가 되고 벼슬이 어영중군별장(御營中軍別將)에 이르렀다. 순조의 지우(知遇)를 받아 오랫동안 대궐(大闕)에 출입(出入)하여도 대궐(大闕)의 일을 말한 일이 없었으며 조정(朝廷)에 나간지 30년에 사사로운 일로 남에게 간섭(干涉)하지 않았고 여러번 군읍(郡邑)을 다스렸으나 가는 곳마다 치적(治績)이 있었다. <연천집(淵泉集)>

十 이홍저(李弘著: 이조)

본관은 덕수, 이충무공의 현손(玄孫)이며, 벼슬은 영장(營將)을 지냈다. <신정아주지(新定牙州誌)>

十 이완(李莞: 선조 12년 (1579)~인조 5년 (1627))

이조 중기(中期)의 무관(武官), 자는 열보(悅甫), 시호(諡號)는 강민공(剛愍公), 본관은 덕수이며, 이순신(李舜臣) 장군의 조카이다. 20세(歲)에 충무공을 도와 싸움에 공(功)을 세웠고 노량해전(露梁海戰)에서는 충무공이 적탄에 쓰러지자 시체를 안아 방에 누이고 전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전쟁을 독려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선조 32년 (1599) 무과에 급제하고 인조원년 (1623) 충정병마절도사(忠淸兵馬節度使)에 올라 이듬해 군사를 몰아 이천(利川)에서 이괄(李适)의 난을 평정하고 의주부윤(義州府尹)으로 나갔다. 모문룡(毛文龍)의 군사들이 춘가에 나가 해를 끼침이 심하므로 이괄이 분함을 참지 못하여 곤봉으로 때린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한계급 강등을 받았으며, 이로부터 모문룡과의 사이가 좋지 못했다. 정묘호란(丁卯胡亂)때에 적이 의주를 포위하자 적과 싸우다가 부상하여 승산이 없으므로 「국가의 군기(軍器)는 적(賊)에게 내줄수 없다」 하고 화약고(火藥庫)에 불을 지르고 종제(從弟) 이신(李薰)과 더불어 불에 뛰어 들어가 분사(焚死)하였다. 후에 병조판서(兵曹判書)를 추증(追贈)하고 현충사에 정문(旌門)을 세워 충의를 표하였다. <인조실록(仁祖實錄), 인물고(人物考), 여지도서(輿地圖書(牙山), 아산 현충사 사적(顯忠祠 事蹟)>

十 이세영(李世永: 이조)

이충무공의 후손(後孫), 대한제국의 육군정위(陸軍正尉)이다. 헌병대장서리(憲兵隊長署理)를 역임(歷任)한 정규무관(正規武官) 출신(出身)이었다. 을사오조약(乙巳五條約)이후 의병활동(義兵活動)을 피하다가 일본(日本) 헌병(憲兵)에 체포(逮捕)되어 종신유형(終身流刑)의 선고(宣告)를 받고 황주(黃州)에 유형(流刑)되었다가 만주(滿州)로 건너가서 신흥학교(新興學校)의 교장(校長)이 되어 민족정신교육(民族精神教育)에 힘썼고 이 학교를 신흥무관학교(新興武官學校)로 발전(發展)시켜 독립군(獨立軍)을 양성(養成)하였다. <무장독립운동비사(武裝獨立運動秘史)>

十 이종옥 (李種玉: 이조)

이충무공의 종손(宗孫), 막대한 사재와 종중 재산을 독립군양자금(獨立軍養成資金)으로 희사(喜捨)하였고 자신도 독립운동(獨立運動)에 헌신(獻身)하다가 충무공의 후예(後裔)답게 일생을 조국에 바치었다고 한다.

十 이덕민 (李德敏: 이조)

자는 수도(秀道), 호는 송과(松坡), 본관은 용인, 온양군 이북면 백암리(아산군 염티읍 백암리)에 복거(卜居)하였는데 천성이 효성(孝誠)스럽고 우애가 있었으며, 자신이 유복자(遺腹子)로 태어나서 부친(父親)의 얼굴을 알지 못함을 항상(恒常) 통한(痛恨)하여 모친의 삼년상을 마치고 부친의 상복(喪服)을 추가(追加)하여 삼년을 더 입었다. 백형(伯兄) 사민(思敏)의 거처(居處)가 초원(稍遠)하였는데 매양 찾아가 뵈올 때는 지팡이를 대문(大門)밖에 버려두고 달려 들어갔다고 한다. 조용히 의리(義理)를 연구(研究)하고 오로지 자기(自己)의 학문을 위하여 힘썼으며 홍만전(洪晩全)과 홍송곡(洪松谷)과 더불어 도의(道義)로써 교유(交遊)하며, 왕래(往來)하였다. 송과가 졸하니 처사(處士) 조조우(趙祖禹)가 곡(哭)하며 다음과 같이 시를 지었다.

어머님 상기(喪期)를 마친 후 슬픔을 인하여 추복(追服)을 했고, 형님의 집 앞에서는 지팡이를 버리고 달려 갔다네. 후에 아산 인산서원에 배향되었다. <신정아주지(新定牙州誌)>

十 이달수(李達秀: 이조)

본관은 덕수, 충민공(忠愍公)의 손자(孫子)이며, 벼슬은 승지(承旨)를 역임(歷任)하고 가선대부(嘉善大夫)로서 병사(兵使)를 지냈다. <신정아주지(新定牙州誌)>

十 이사수(李思秀: 이조)

본관은 덕수, 충숙공(忠肅公)의 회손(會孫)이며, 벼슬은 영장(營將)을 지냈다. <신정아주지(新定牙州誌)>

十 이인빈 (李仁彬: 이조)

본관은 덕수, 한범의 손자(孫子)이며, 벼슬은 방어사(防禦使)를 지냈다. <신정아주지(新定牙州誌)>

十 이명상(李命祥: 이조)

본관은 덕수, 홍무(洪茂)의 아들이며, 벼슬은 가선대부(嘉善大夫)로서 병사(兵使)를 지냈다. <신정아주지(新定牙州誌)>

十 이충빈(李冲彬: 이조)

본관은 덕수, 한범의 손자(孫子)이며, 벼슬은 방어사(防禦使)를 지냈다. <신정아주지(新定牙州誌)>

十 이춘희(李春熙: 이조)

본관은 덕수, 의빈(義彬)의 아들이며, 벼슬은 방어사(防禦使)를 지냈다. <신정아주지(新定牙州誌)>

十 이한필 (李漢弼: 이조)

본관은 덕수, 충민공의 아들이며 승지를 역임하고 가선대부(架善大夫)로서 병사(兵使)를 지냈다. <신정아주지(新定牙州誌)>

十 이계빈(李槩彬: 영조 48년(1772)~현종 3년(1837)~)

본관은 덕수, 홍무의 현손(玄孫), 영조 48년(1772)에 아산에서 태어났다. 불과 나이 5살

의 어린 아이로 토를 달아 척척 읽는 수재(秀才)였으나 아버지를 잃은 후에는 가세(家勢)가 기울어지기 시작(始作)하여 어머니를 흠족하게 모시지 못함을 항상 고민하던 차에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스스로 손가락을 끊어 피를 드려 반나절이나 더 살아계시게 하였으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같이 어머니의 무덤을 살피니 그 효성(孝誠)이 극진하여 세간(世間)의 사표(師表)로 삼고자 현충사(顯忠祠)에 정려(旌閭)를 세웠다. 순조 1년 (1800) 30세 때 문과에 올라 경상좌병사(慶常左兵使)에 이르렀고, 현종 3년 (1837) 66세 때 별세(別世)하였다. <신정아주지(新定牙州誌)....>

十 이은빈(李閔彬: 이조)

자는 사질(士質), 본관은 덕수, 이충무공의 후사(后使) 건수(健秀)의 아들이다. 순조조에 선전관(宣傳官)을 거쳐 무과에 급제하여 전라병사(全羅兵使)를 지냈다. 부친의 병환(病患)에 금두꺼비가 약(藥)이 된다는 의원(醫員)의 말을 듣고 겨울에 그것을 구해다가 드리니 효과(效果) 있었다. <조선환여승람(朝鮮纂輿勝覽)>

10) 종교단체

뱀발마을에는 불교인 백암사가 있는데 오래된 고찰은 아니며, 신도수는 45명 정도다. 또한 구묵골 마을에는 기독교인 백암감리교회가 있어 백암리 마을 뿐만 아니라 주변 마을에서도 이 교회로 다니고 있으며, 성도수는 120명에 이른다.

11) 공장현황

마을에는 충무공 이순신의 사당인 현충사가 있 뱀발 마을은 대부분 이씨들의 집성촌이었기 때문에 덕수 이씨들이 대부분이때문에 주위에는 공장이 들어설수 없으며, 심지어 현충사가 있어 집 보수 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한다.

12) 마을의 특성

뱀발 마을은 대부분 이씨들의 집성촌이었기 때문에 덕수 이씨들이 대부분이, 이곳에 현충사가 자리하고 있고, 송파당은 아산군 염티읍 백암리에 있었는데 처사(處士) 이덕민(李德敏)이 거처(居處)하던 곳으로 뜰에는 대나무를 심어 자연(自然)이 울창하고 나무들이 무성(茂盛)하여 그윽한 정취(情趣)가 매우 좋았다고 하지만 지금은 찾아 볼 수 없다.

구묵골 마을은 마을 뒷편으로 산이 있으며, 앞으로는 곡교천이 흐르고 있으며, 따스한 정이 넘치는 곳으로 이곳도 이씨 집성촌이었다.

끝뱀발 마을은 농업보다는 기타 서비스업종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 마을로서 가구가 무척이나 적으나 아직도 서로 도와주며 살고 있는 마을로 온양온천과 인접해 있는 마을이다.